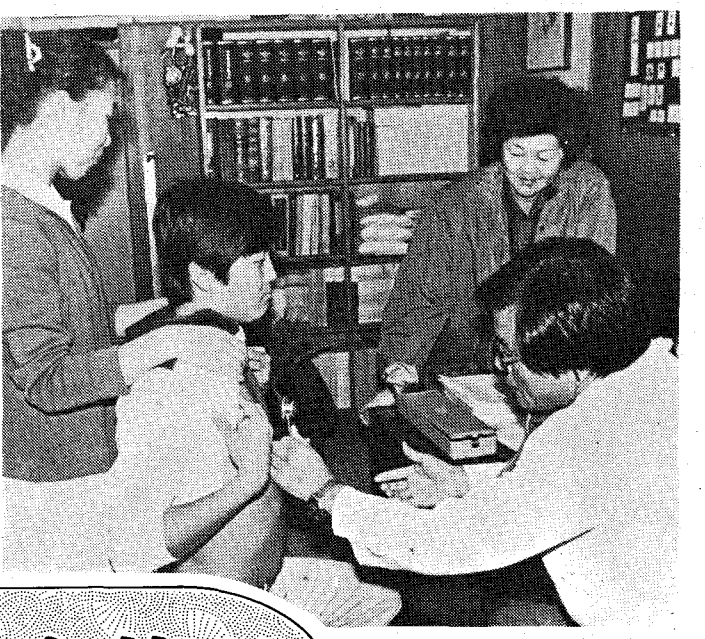
◆… 만성간염이라 함은 최근 6개월동
◆…안 회복없이 간내에서 만성 염증반
◆…응이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등 각종 바이러스, 알콜, 약
◆…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여러 요인
◆…에 의하여 발생한다. 만성간염은 근
◆…본적으로 만성·지속성 간염과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나눌 수 있고, 여
◆…기에 만성 소염성 간염을 추가하기
◆…도 한다. 만성간염의 원인이 무엇이
◆…든지 위에서 말한 세 유형중 하나
◆…에 속한다. 이 세 유형의 구분은임
◆…상증상 및 간기능검사 소견으로 어
◆…느 정도 구분이 되나 확진은 간조
직생검으로만 가능하다. 만성 지속성…◆
간염은 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
고 때로 피로감, 식욕부진, 간 위치…◆
의 불편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학…◆
적 소견은 간이 약간 압통성으로만…◆
져지기도 하나 만성 활동성 간염에…◆
서 볼 수 있는 비장증대나 거미모…◆
양의 혈관확장은 보이지 않는다. 검…◆
사소견도 빌리루빈의 경도의 증가, …◆
GOT/GPT의 경도의 증가등이있…◆
을 수 있으나 정상인 경우도 많다…◆
예후도 양호하여 대부분 간경변증이…◆
나 간암으로 이행없이 회복된다. …◆
…◆



慢性肝炎 치료와 管理

奇 椿 錫
〈漢陽醫大내과교수〉

만성 활동성肝炎은 그 원인에따라 그 증상이 다양한데, 만성 지속성 간염에 비해 피로감이 심하고 황달의 심화및 회복이 생기며, 간및 비장이더욱 촉진이 잘되며 심하면 복수등 문맥고혈압 증상을 보이기도하나 때로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본문에서는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이 정도로 약하겠다.

만성간염의 원인에따라 그치료가 다양하나 현재 만성 바이러스간염, 특히 만성 B型간염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므로 주로 B형간염의 치료에 대해 말하겠다.

B형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활동성간염의 내과적치료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며 치료의 전망은 질병의 자연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환자가 체내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염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혈중에 순환되는 바이러스의 양적인 문제등이 크게영향을 끼친다. 또한 개개인의증상의 발현이 치료에 크게 영향을 갖게되는데 즉 전염성여부, 임상증상및 간장기능장해의 정도등이 중요하다.

일반요법

대부분 만성간염환자는 정상생활을 영위하여 환자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설득 교육하는것이 중요하다. 급격히 간기능이 악화되고 황달및 심한 피로감등이 나타날때 외에는절대안정은 필요없으나 지나친과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점차적으로 가벼운 운동을하여 체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하며,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것이 좋으나 포도주 한잔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식사문제도 복수가 생기거나 부종이생기지 않는한 염분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며 간성 혼수의 증후가 없는한 단백질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영양상태를 좋게 한다고 무조건 고영양식에 절대안정을 취하면 오히려 간의 지방간화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할 식사가 요망되며 특별히 삼가할 음식은 없다. 그러나 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제, 특히 한약제재, 항생제, 진통제및 안정제등은 그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청된다. 널리 사용되어지는 소위 간장약은 일부 간에 영양공급 및 지방간화의 방지등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만성간염의 경과에 큰 영향을 주지않으며, 과량사용시 오히려 간에 해를 줄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약물요법

약물요법의 목적은 B형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전염성을 약화시키고 염증성 간질환의 진전을 막아보자는데 있다. 그러나 어떠한 내과적 치료에 의해서도 B형肝炎 표면항원이혈청에서 음전되게끔 완전히 B형바이러스를 제거시킬 수 는 없다.

간세포괴사등 염증변화는 항바이러스 요법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감소되거나 중지된 예가 여러 보고를 통하여 알려져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약제의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란을 빚고있다.

시도되어지는 만성 B型 바이러스 간염의 치료제로서는抗바이러스제재와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제재들이다.

항바이러스제재로는 아데노신 아라비노사이드 (Adenosine arabinoside)및 인터페론 특히 알파 원 인터페론 (α-1 Interferone)이 흔히 알려져 있는데, B형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여 바이러스의 활동성지표로 사용되는 e항원 및 HBV-DNA의 음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효과의 논란이 많고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있다. 이외의 항바이러스 제제들은 아사이클로구아노신 (Acycloguanosin), 리바비린 (Ribavirin), 포스포노포르믹 액시드 (Phosphonoformic acid), 퀴나크린 (quinacrine), 클로로퀸 (Chloroquine)등이있는데 시험적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다.

둘째로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제재들이 있는데 두가지 난관이 있다. 첫째 만성 B형간염에 있어서의 면역결핍상태에대한 성상이 아직도 밝혀져있지 않고 둘째 면역반응을 변조시키거나 효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는 적절한 약제가 없다는점이다. 시도되어지는 치료로는면역글로부린 투여, BCG접종, 레바미솔 (Levamisole) 투여, 면역RNA 투여, 트란스퍼인자의 투여및 면역억제제인 부신피질호르몬의 투여등이 거론되는데 그 가능성은 엿보이지만 아직은 실용화단계에문제가있다.

만성간염의 관리

만성간염의 관리의 최선책은 예방이다. 혈액을 다루는 의료종사자등 B型 간염에 노출되기 쉬운사람과 주위 가족에보균자 또는 만성 활동성 간염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 백신주사가 필요하다. B형 간염보균자인 경우 50세이상에서 해마다 3%씩 원발성 간암이되고 간경변증환자는 12%에서肝癌이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주기적으로 간기능검사및 표면항원검사, 간암표지자인 알파 피토푸로테인 (α-fetoprotein) 검사가 필요하다. 이미 만성활동성 간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간경변및 간암의 조기발견을위하여 주기적으로 역시 간기능검사, 알파피토푸로테인, 그리고 복부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다.

◆이미 만성활동성 간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간경변및 간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역시 간기능검사, 알파피토푸로테인, 그리고 복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記事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만성 B형 肝炎보균자인 경우 주기적인 肝기능검사를 실시 간경변및 肝癌의 조기발견 필요

우리손으로 개발!
우리 技術, 우리 原料로 만든 B型 肝炎 백신
헤파박스®-B
녹십자 GREEN CROSS
주식회사 녹십자
●본사 : 584-0131(代) ●판매 : 서울925-0131, 부산83-8977, 대구352-4911, 대전623-0131, 광주56-5781, 전주3-7310, 마산2-4991, 원주42-2759, 청주52-8661, 인천73-0132
한 우물을 파는 精誠이 技術의 深度를 더 해 갑니다.